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 현장

철커덕!

자재운반을 위해 임시로 설치된 자재운반용 케이블카가 미륵산 정상 방향 올라가기 시작했다. 쇠! 드르르! 굵게 늘어진 케이블카 선로를 따라 케이블카가 위로 올라가는 요란한 소리가 귓전을 때린다. 6월 8일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 현장답사를 위해 통영을 찾은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정업 스님과 용화사 주지 선곡 스님, 통영시청 관계자가 자재운반용 케이블카에 몸을 싣고 미륵산 정상을 향해 있었다.

상부 정류장 공사가 진행 중인 미륵산 정상 부근은 전통사찰인 조계종 용화사 소유의 토지가 있는 곳으로 총 1975m인 케이블카 선로 중 573.8m가 용화사 땅을 지나야 한다. 이는 1700여 평 정도의 용화사 땅을 사용할 수 있어야 케이블카 완공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용화사가 조계종 총무원에 토지 임대 사용 승인 요청을 하게 된 배경이다. 그러나 통영시는 조계종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미 용화사 토지를 사용하며 케이블카 선로를 설치했고 공사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이는 전통사찰보존법에 따른 절차를 명백하게 무시한 처사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 정업스님(중앙)이 미륵산에 올라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통영시를 방문한 정업 스님은 이를 지적하며 "통영시가 절차를 밟지 않고 종단을 무시한 채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종단을 종교 이기주의로 몰아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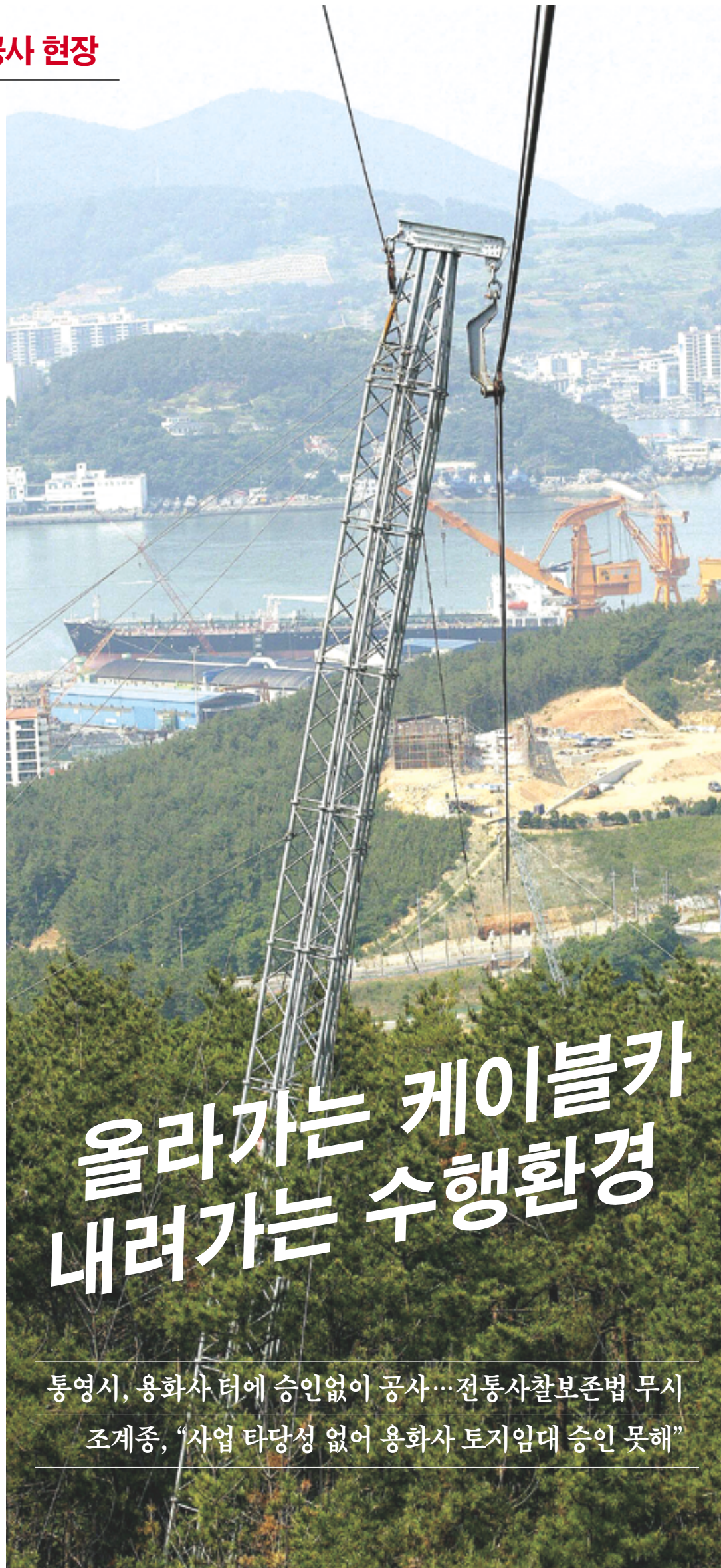
케이블카 하부 정류장을 출발, 미륵산 정상에 올라 한산대첩 현장을 한눈에 보는데 걸리는 시간은 10분. 걸어도 2시간이면 충분한 미륵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이유가 뭐냐?

미래사 주지 여진 스님은 "사업 계획 단계에서 통영시는 케이블카 사업의 흑자를 장담했지만 이제 케이블카 사업은 적자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뻔히 보이는 적자를 알면서도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오히려 통영 시민을 죽이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너무 오랫동안 케이블카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보니 불교계 내부 손실 또한 크다"며 종단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했다.

이날 현장을 답사한 사회국장 정업 스님은 "케이블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면 어떤 단체가 반대해도 토지 승인을 받아들이겠지만 사업의 타당성이 없고 환경이나 수행 등에 악영향이 있다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찬성해도 승인할 수는 없다"는 기본 입장을 전했다.

미륵산 케이블카 공사가 완료되면 총 1975m의 선로에 47개의 8인승 캐빈(객실)이 매달려 산을 오르내리게 된다. 결코 크지 않은 미륵산 자락을 오르내리게 될 47개의 객실을 상상하는 사이 자재운반 케이블카는 굉음을 내며 미끄러지듯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통영=천미희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올라가는 케이블카 내려가는 수행환경

통영시, 용화사 터에 승인없이 공사... 전통사찰보존법 무시
 조계종, "사업 타당성 없어 용화사 토지임대 승인 못해"



■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왜 문제인가

생태계 파괴·적자운영 불 보듯... '전형적 전시행정'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 공사로 적지 않은 수목들이 잘려나갔다.

1996년 6월 통영시가 관광케이블카 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된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총 17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케이블카 왕복운행에 필요한 정류장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애초 2002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이어져오다 지난해 12월 공사를 재개해 현재 40%의 공정에 이른 상황이다.

그렇다면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무엇이 문제인가. 환경단체와 불교계 관계자들은 그리 높지 않은 높이(461m)에 들어서는 케이블카 정류장 대형 시설물과 케이블을 지탱하기 위해 세워야 할 54m의 철탁 등이 미륵산의 경관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수목제거로 인한 생태계와 자연환경을 파괴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또 2만 볼트가 넘는 고압전류와 상부정류장

에서 발생하는 각종 폐기물들은 정류장에 인접한 미래사 등의 수행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또 사업 자체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있는 그대로의 자연경관 체험을 선호하는 최근 관광객세와도 맞지 않을 뿐더러 케이블카가 설치된다고 해서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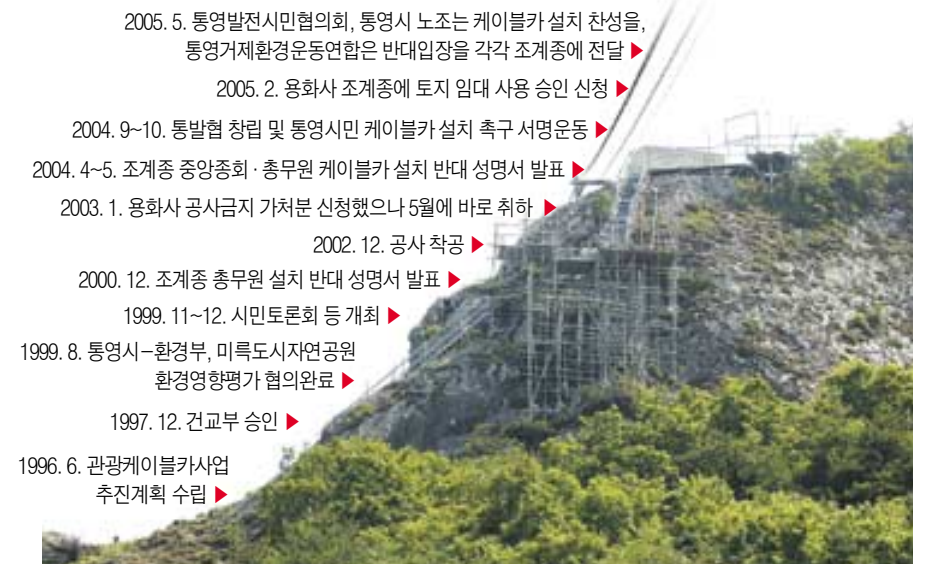
특히 케이블카 이용료가 6000~9000원 선에서 결정된다고 했을 때 30만 명이 이상이 이용해야 적자를 피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현지인들의 반응이다. 한려수도에 인접한 다른 도시들이 케이블카 사업 추진에 소극적이었던 것은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윤미숙 정책실장은 "적자 운영이 예상되는 데도 통영시가 케이블카 설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역 건설업자와 토호들의 입장을 대변한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통영시가 정류장 부지 소유주인 조계종으로부터 토지 임대 승인도 받지 않은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것도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유철주 기자

■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 주요 일지



- 2005. 5. 통영발전시민협의회, 통영시 노조는 케이블카 설치 찬성을,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반대입장을 각각 조계종에 전달 ▶
- 2005. 2. 용화사 조계종에 토지 임대 사용 승인 신청 ▶
- 2004. 9~10. 통발협 창립 및 통영시민 케이블카 설치 촉구 서명운동 ▶
- 2004. 4~5. 조계종 중앙총회·총무원 케이블카 설치 반대 성명서 발표 ▶
- 2003. 1. 용화사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했으나 5월에 바로 취하 ▶
- 2002. 12. 공사 착공 ▶
- 2000. 12. 조계종 총무원 설치 반대 성명서 발표 ▶
- 1999. 11~12. 시민토론회 등 개최 ▶
- 1999. 8. 통영시-환경부, 미륵도자연공원 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 ▶
- 1997. 12. 건교부 승인 ▶
- 1996. 6. 관광케이블카사업 추진계획 수립 ▶

불경금책

1) 실물크기(3.5×5cm) - 금강경 24매
 2) 실물크기(5×7cm) - 금강경 24매
 천수경 12매 · 반야심경 8매

복상불호소영
 장량신장가
 의식사용용
 칩도

금강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의 99.9%금으로 만든 초소형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여 화제다.

불경금책은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묘법연화경, 관세음보살보문품 등이 있으며 3.5×5cm 5×7cm, 7×10cm 크기로 있어 소장 및 휴대가 가능하고 기타 용도로 사용한다. 불경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기쁨을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다.

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한다.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용 개인 소장용으로 최고급 소형금경품도 주문제작 한다. 기도정진 재래응등 여러 용도로 사용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02)722-1850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 개인소장용
 합격기원, 소원성취, 백일기도 재래용

허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열침의 효능
은행석 온열복대

건강에도 최고! 선물로도 최고!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 하면 질병의 원인이 된다.

원적외선 “침”의 효능! 신비로운 은행석 온열복대

생명의 빛 생명의 氣

원적외선 “침” 쑥뜸의 효능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며 3대 특산품의 금강암이 주성분인 최고의 기능성 건강 치료기 은행석 온열복대는 약력이 70~80°C 이상의 고열이 발생 뱃속 깊숙이 원적외선 “침”을 맞는 효능과 34개의 쑥뜸을 동시에 시술받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이른 곳에다 복대하고 편안하게 앉지만 있어도 장수의 노폐물 배출, 허복부 지방분해,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변비, 생리통, 냉대하등을 자연 치유력 하며 당뇨 및 성기능개선 등에 효과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침선기도 하시는 분 ● 허약한 氣회복 ● 생리통 허리통증 완화 ● 허복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 의자에 앉아 정시간 업무를 보거나 공부하는 수험생의 디스크 허리교정 ● 산후조리, 수술후 요양중이신분에게 적극권장 ● 아랫배가 냉산 분

문의전화 : 닥터금강 (02)3210-3178, 9 www.dk21.net
 ◆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